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85

JCCT 2022-1-32

# 대학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연구 - C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key competencies for the innova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박종진\*

Jongjin Park\*

**요약** 4차 산업혁명의 21세기는 산업화 시대에서 요구하던 것과는 다른 ‘역량’을 새로운 교육적 개념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양 및 전공 교육에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 이를 통한 교육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들은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위해 교양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C 대학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다양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교양교육 측면에서 핵심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C 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을 위해 부족한 핵심역량 과목을 개발하여 제안하였고, 교양교육 특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디그리를 제안하였으며,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메타학습 관련 교양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핵심역량, 교양교육, 교육과정, 특성화

**Abstract** The 21st centur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mands ‘competency’ as a new educational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that required in the industrialization era.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and demands of society, universities are being called for key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innovation in education through this b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methods in liberal arts and major education. At this point, universities are presenting a comprehensive reform of liberal arts education for various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is study presents the case of University C regarding the reform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for the innova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each university is reorganizing the liberal arts curriculum in a way that can suggest various key competencies according to the university's founding philosophy and induce key competencies in the aspect of liberal arts education. For the key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of University C, we proposed various subjects for insufficient key competency subjects, various micro-degrees were proposed to specialize liberal arts education, and meta-learning-related liberal arts subjects were presented to improve basic learning ability of the students.

**Key words** : Key Competencies, Liberal Arts, Curriculum, Specialization

\*정희원, 청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본 논문은 박종진(2021)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jjpark@chungwoon.ac.kr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Chungwoon Univ, Korea

## I. 서론

그동안 사회나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던 고등교육에 있어서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상징되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내 각 대학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무기력한 지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담보하는 ‘쓸모 있는 역량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학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을 통해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을 대학에 요구해 왔으며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와 글로벌 창의 인재에 대한 요구는 ‘지식’을 대체하여 ‘역량’을 새로운 교육적 개념으로 급속히 부각 시켰다. 21세기는 산업화 시대에서 요구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존의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를 넘어서서, 지식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세계적인 안목과 적응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따라 교양 및 전공 교육에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맞추어 충청권과 인천에 두 개의 캠퍼스를 둔 C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을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편하고 대학을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시작된 역량 중심 교육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타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조사를 통해 진행된 C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2].

## II. 역량 기반 교육

### 1. 미래사회와 핵심역량의 변화

OECD가 2003년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역량 연구의 결과물로 핵심역량(3개 영역에 9개의 하위 역량)을 발표한 이래, 이는 세계의 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 OECD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규명하고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탐색하기 위해 OECD 교육 2030(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1주기 사업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미래 역량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1주기 사업의 결과물인 OECD 학습개념틀이 “학습 나침반 2030(Learning Compass 2030)”라는 이름으로 2019년 5월에 발표되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2주기 사업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1주기 사업에서 규명된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실행 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3].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계 인사와 교육 리더,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주축이 돼 2002년 P21(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고 비정부기구인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교육과정재설계센터)를 만들었다. 미국의 교육과정재설계센터는 21세기 미래역량 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를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식(학생들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스킬(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인성(세상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메타학습(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면서 적응력을 키워가는 방식)의 4가지 차원이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는 CCR의 이러한 기반 작업에 기초하여 서로 협력하며 진행되고 있다. CCR의 역량교육 개념틀인 21세기 교육의 개념틀에서 제시한 4가지 차원은 그림1과 같다.

우리나라에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핵심역량 6가지를 제시한 이후이다.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아직 논쟁 중에 있으며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기반교육을 정책지표로 유도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핵심역량기반의 교양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

한국대학생핵심역량진단시스템(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를 개발하여 한국대학생의 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하였다. K-CESA는 어떤 직군에 소속되든 핵심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대학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4], 의사소통 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능력,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역량,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의 6개 역량을 제시한다[5]. 대학들이 이 역량들을 포함하여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다양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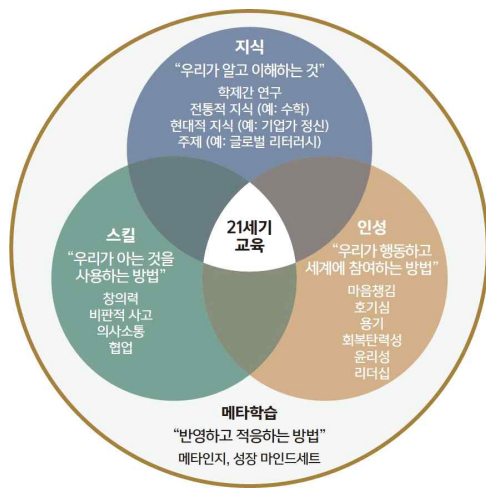


그림 1. 21세기 교육의 개념틀[1]  
 Figure 1. Framework of 21C Education

## 2.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특성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으로 미래인재의 조건으로 산업체 전문가들은 융·복합적 역량과 창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전공 사이의 벽을 허물어 다양한 전공 지식을 융·복합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교육 방법 나아가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양교육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고 능력과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긍정적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대학기본역량평가를 포함해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진단평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은 “핵심역량 설정의 타당성, 핵심역량과 발전계획 간 연계성,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 편성·운영의 적절성, 환류를 통한 교양 교과목 개선·보완의 적절성”에 대하여 진단평가를 받아야 한다. C 대학도 이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 C 대학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내·외 연구보고서 및 컨설팅의 교양 교육과정 제안점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과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상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교양교육의 특성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즉, 대학의 특성화 계획에 따라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구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만의 특성화 계획과 연계된 교양교육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증대해 왔다[1].

## III.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인성 부분, 리더십 부분 우수 사례 각 4개교 및 5개교,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우수 사례 4개교, ACE+ 선정 대학 4개교 등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빈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분석
- 국내외 대학 사례 조사 및 분석
- C 대학 교양과정 분석 및 진단
-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과정 설계
- 대학 교양과정 특성화 설계 제안

### 2. 연구대상

핵심역량기반교육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래 9가지가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로 전개된다. 이를 통해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하나하나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많은 대학들은 주로 핵심역량 선정, 교과목별 핵심역량 매핑 그리고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에 편중된 부분적인 역량기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유형 개발,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및 역량 매핑,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다룬다.

연구단계	1단계		2단계		
연구대상	선행 연구/국내 대학		C 대학교		
연구과정	1차	2차	1차	2차	3차
연구내용	문헌 및 교육과정 조사/분석	핵심역량기반 우수 교육과정 분석	연구계획 설정	교양과정 분석/진단, 외부전문가 자문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과정 설계
연구결과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사례와 역량교육 트렌드 파악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설계		
연구방법	문헌 분석 및 사례 연구		교내자료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관련 교직원 정책 회의/공청회		

그림 2. 연구 추진도  
Figure 2. Diagram for research

- ① 교육목표 재확인 및 인재상 정립
- ② 핵심역량 모델링
- ③ 역량기반 교육과정 유형 개발
- ④ 역량기반 교과목 개발 및 역량 매핑
- ⑤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 ⑥ 역량기반 교수학습법 개발 및 보급
- ⑦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⑧ 역량기반 교육성과 평가
- ⑨ 역량기반교육의 질 관리 및 환류

#### IV. 연구 결과

##### 1.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단계

국내의 각 대학들은 핵심역량기반의 교양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과제를 진행하고 각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을 위해 단계별로 그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각 대학은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교양교육과의 연계성을 드러내고 있다[6].

각 대학들은 교양교육 측면에서 핵심역량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양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교과수준에서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교양교육과정 자체를 핵심역량 기준으로 교양이수체계나 교양영역을 변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교양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의 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역량에 치우친 교양교과들만 개설되거나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균형있게 핵심

역량 연계 교과를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식 수업·토론식 수업 활성화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수의 강의 중심 수업을 축소하는 대신 프로젝트 기반, 토론 및 세미나형 수업의 확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구성하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인 협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역량에 대한 이수 조건을 졸업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핵심역량 인증제나 핵심역량 졸업인증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핵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이면서도 인센티브 기반의 체계를 마련해주고 있다.

##### 2. C 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방향

C 대학은 개교 이후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 체제 및 교과과정 등을 개편해 왔으며, 2013년 교양교육 진단평가 이후 많은 개선을 이루어 교육 혁신을 위해 교양학부를 설립하여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교양과목을 개설하였다. 2016년에는 외부기관의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의 변화와 더불어 두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 교양교육보다 전공에 편중되어있는 교육과정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도출되었고 개선되어왔다.

2019년에는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확대, 개편하여 교양교육 주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교양교육연구센터, 인성교육센터, 의사소통센터를 신설하였으며, 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재정비하였다. 새로운 인재상에 따라 대학의 3대 핵심역량을 창의지성, 인성, 시민성으로 재설정하고, 3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양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다. C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특성을 살린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인 인성과 지성에 더불어 창의 실용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에 부합한 교양교육과정 설계
- 교양교육과정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양교육과정 설계
-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핵심역량기반의 교양교육과정 설계

### 3. 교양교육과정 설계

C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은 표 1의 핵심역량 교육적 연계의 단계에서 보면 2단계에서 3, 4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C 대학의 교양교과목은 2021년도 기준 144 과목이 있으며, 332개 강좌가 운영되었다.

표 1. 핵심역량 교육적 연계 단계  
 Table 1. Key Competencies Educational Stages

	핵심역량 반영 내용
1단계	대학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 설정
2단계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의 연계
3단계	핵심역량강화 수준 또는 교육효과 점검
4단계	핵심역량설정에 대한 검증 또는 수정

핵심역량별, 영역별 교양교과목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핵심역량간 교양교과목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핵심역량별 과목 분포는 창의지성역량(40%, 57개 과목), 시민성역량(35%, 50개 과목), 인성역량(26%, 37개 과목) 이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인성역량과 시민성역량 교과목의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3대 핵심역량에 대해 2개의 하위역량을 설정하였고 창의지성, 인성, 시민성 역량에 대해 각각 융·복합적 사고, 통합적 학문탐구, 사회관계, 자기개발, 사회공헌, 글로벌역량의 하위역량이 있다. 3대 핵심역량과 하위역량

별 개발 교과목 예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핵심역량별 개발 교과목 예시  
 Table 2. Examples of developed subjects by key competency

핵심역량	하위역량	교과목(영역별) 예시
창의지성 역량	융·복합적 사고	음악의 이해 디자인생각 소셜빅데이터분석*** 소셜콘텐츠마케팅***
	통합적 학문탐구	영화의 이해 사랑과 성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로봇과 인간 의식주플랫폼창업*** 소셜빅데이터프로젝트***
인성 역량	사회관계	창의성품개발** 청운인성II** 팀워크* 팀리더십* 프로젝트관리 및 테크니컬커뮤니케이션# 청운인성III**
	자기개발	셀프리더십* 종교학개론 종교와 인간이해 자아성찰과건강한삶 스포츠와 건강 필라테스와 요가 헬스와 건강 스포츠와 문화 진로설계와 자기개발 스트레스와 건강
시민성 역량	사회공헌	글로벌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 IT 비즈니스와 윤리 인간의 삶과 책임-적정기술 사회적기업 시민사회와 이해 지역소셜트렌드분석**** 지역소셜빅데이터프로젝트****
	글로벌 역량	글로벌리더십* 시사영어 중국문화의 이해 지역복합문화공간과 삶**** 지역문화콘텐츠창업****

\*: 리더십 마이크로디그리, \*\*: 청운인성 마이크로디그리  
 \*\*\*:이노비즈 마이크로디그리, \*\*\*\*:지역혁신 마이크로디그리  
 #: 의사소통 마이크로디그리 관련 과목

C 대학의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역량 하위역량별 중요도-기여도 IPA 분석 결과’는 중점개선역량으로 중요성 인식에 비해 낮은 기여도를 보이는 ‘자기개발’과 낮은 우선순위역량으로 중요성과 교양교육기여도 모두 낮은 ‘글로벌역량’, ‘사회공헌’이 있다. ‘자기개발’은 인성의 하위역량으로 리더십역량과도 관계가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산업체 응답자 모두 자기개발의 중요성에 비해

성과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되므로 교양교육에서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과목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공헌’과 ‘글로벌역량’은 중요성 인식 제고와 교양교육을 통한 기여도가 향상되도록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 4. 교양교육 특성화 방안

C 대학은 교양교육 추진 체계에 따라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학습자 중심 교양교육, 지역맞춤형 교양교육을 교양교육 혁신 목표로 설정하여 수행하여왔으며 세부 추진전략으로 핵심역량, 인성, 기초학문능력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편, 사회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과목 개발 및 확대, 교양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양교육 환경 체계 구축, 교양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시스템 개혁, 학생친화형, 학생맞춤형 교양교육과정 활성화로 하고, 추진전략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었고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환류와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계 구축·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인성 역량 교육을 위한 교과목의 개발과 다양한 방안으로 인성·리더십 역량 교육, 마이크로디그리, 인증제 등이 제안되었다. 표 2에서 교양교육 특성화를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과목들을 표시하였다.

리더십 역량은 CCR의 21세기 교육의 개념틀에 의하면 인성에 포함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또는 인성과 별개로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인식되어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관계 역량의 세부 역량은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력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산업체 수요조사에 따른 중요 핵심역량 중 하나이다. 의사소통능력은 산업체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융·복합적사고 능력과 같이 교양교육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 대학은 핵심역량 개선 전략과제로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자율적 학습공동체 고도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1, 2학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메타학습 관련 내용을 교양 교과목 또는 비교과 교육을 통해 제공하여 관련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대내외적인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 이를 통한 교육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들은 교육 부로부터 대학기본역량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위해 교양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혁신을 위해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C 대학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각 대학들이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다양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교양교육 측면에서 핵심역량강화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교양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핵심역량 교육적 연계 단계의 3, 4 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C 대학의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을 위해 부족한 핵심역량 과목을 개발하여 균형을 유지하였고 교양교육 특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디그리를 제안하였으며 1, 2학년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메타학습 관련 교양 교과목을 통한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References

- [1] S.S. Paek,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3, PP. 11-23, June 2020.
- [2] J.J. Park., *Policy research for the reform of liberal arts curriculum in 2022*, Chungwoon Univ., 2021.
- [3] S.J. Choi, et.al., *A study on the OECD Education 2030 project: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future-oriented competency-based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9.
- [4] S.Y. Hong, “The Experience of Examinees Repeating K-CESA: A Case Study,”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Vol. 10, No. 4, PP. 1-30, December 2015.
- [5] H.J. Park, “A general education program planning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2, No. 2, PP. 65-87, April 2018.
- [6] H.Y. Kim, et.al., “Efforts of Liberal Arts Education to Strengthen the Core Competence of Universities,”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Vol. 2, No. 1, PP. 83-103, March 2021.

#### V. 결 론